

# 소규모 공공건설 공사비 현실화

### 광주시·자치구 설계기준 마련 협소한 현장 활동 등 적용 지역 중소건설업체 부담 완화

광주시가 지역중소건설업체의 부담을 가중하고, 건설시공을 방해하는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 기준을 개선한다.  
광주시는 "소규모 공공건설 공사비를 현실화하고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설계기준은 이달부터 시범 적용하고, 내년부터 본격 적용한다.

그동안 소규모 공사는 공사물량이 적는데다 작업현장 이동이 많고 협소한 현장 특성과 여건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도, 설계예정가격을 저가예산에 맞춰 발주하는 행정 관행 탓에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부담을 가중하고 건설한 시공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난 3월부터 계약부서와 시·자치구 발주부서,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 대한토목학회 광주전남지회 등이 참여한 협업조직을 구성 운영해 개선한 설계기준을 마련했다.

설계기준은 시와 자치구가 발주하는 총공사비 5000만원 미만 골목길 하수도공사, 상수도 급배수공사, 소규모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주요내용은

▲표준품셈 기준보다 수량이 적고 시공 구간 이동이 많은 현장 활동 ▲협소한 작업장소 현장 활동 ▲현장 내 자재, 레미콘, 폐기물 소운반비 적용 ▲공사현장 뒷정리, 교통 신호수 변경 등이다.

시는 또 올해 안에 '건설공사 설계지침'과 '건설공사 업무매뉴얼'을 개정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물 건설에 대한 계획부터 유지관리까지 모든 공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

김경호 광주시 건설행정과장은 "이번 설계기준 마련은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권익보호,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교통약자 배려하는 공동체 만들어요" 광주시철도공사와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함께 광주시 동구 금남로47가역에서 '임산부 배려 에티켓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 참여기관 임직원들은 지하철 이용 승객을 대상으로 임산부 배려 인식개선 퀴즈, 임신부 체험, 홍보안내지 배포, 임산부 배려서 자리양보 캠페인 등을 하고, 교통약자 배려를 위한 에티켓을 홍보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 광주시철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전국 1위

### 도시철도 중 첫 8년 연속 우수기관 재난컨트롤·코로나 방역 등 호평

광주시철도공사가 정부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중 8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된 첫 사례라는 게 광주시철도공사의 설명이다.

광주시철도공사는 "행정안전부의 '2021년 전국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272개 지방공기업 가운데 전국 1위인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광주시철도공사는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한 재난컨트롤 타워 구축과 양심마스크 운영을 비롯한 현장 맞춤형 방역, 착한임대인 감면 등 지역 상생 마케팅, 코로나 극복 시민위로 프로젝트 등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드론·IoT를 활용한 시설물 점검 관리 등을 통해 행안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국토부 불시비상대응훈련 우수기관 선정, 2년 연속 행안부 고객만족도 조사 전국1위, 인적자원개발 최우수기관 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받아온 점 등도 반영됐다.

광주시철도공사는 이 밖에 임신부·다자녀 가정 운임면제제도, 인권패트를 운영, 전국 최초 협력업체 인권영향평가 합동점검 1등급 달성, 광주상생카드 이용 활성화, 지역 골목상권 지원, 지역인재 채용, 공공자원 개방 공유 등 지역과 상생하는 사업들을 진행해오고 있다.

광주시철도 공사 관계자는 "이번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으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최고의 성과를 이뤄냈다"면서 "앞으로도 노사 상생을 바탕으로 이용자 중심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지진 안전 주간...대응절차·역할 점검 훈련

### 5개 자치구 참여 비대면 진행

광주시는 "매년 9월 추진하는 2021년 지진 안전 주간을 맞아 지진 대응절차 및 임무역할 점검 훈련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지진 안전주간은 6일부터 12일까지다. 광주시는 6.0 규모의 실제 지진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5개 자치구별로 대책을 보고하고 토의하는 비대면 영상훈련 방식으로 진행한다.

시는 또 해당 기간에 전국 지자체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캠페인(www.지진안전.com)을 통해 지진안전주간 슬로건인 '타자 밑! 계단! 야외 넓은 곳'을 중심으로 홍보

한다.  
지진 국민행동요령 리플릿 및 홍보물품 배부, 승강기 정보 안내, 극락교 입구 앞 영상강수 위정보 전광판 등 재난영상전광판 공익광고 송출을 통해 시민들이 지진 대피요령을 숙지하고 지진 발생시 대처 역량을 강화하는데도 힘쓰기로 했다.

박남언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 "최근 지진 발생 사례에서 보듯 지진은 예고 없이 언제 어디에서 터질지 발생할 수 있다"며 "지진 행동요령을 평소 알고 미리 대비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시, AI의료지원플랫폼 참여 의료기관 공모

### 1차 전대병원 등 15곳 시범운영 6일부터 80여곳 추가 모집

광주시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광주테크노파크는 "6일부터 '인공지능(AI)의료지원플랫폼' 사업에 참여할 지역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시민체감 AI공공의료 서비스 구축 사업으로 추진하는 인공지능의료지원플랫폼 사업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부각한 헬스케어산업 생태계 조성 및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맞춤형 선진의료 서비스 제공, 지역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 결합 의료지원플랫폼 무상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기관 선정 규모는 95곳 내외로 1차는 지난

6월 시범적으로 전남대병원 등 15곳을 선정했으며, 의료기관의 다양한 진료와 유형별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시는 2차로 80여 곳 내외로 선정하며, 내년부터는 국비를 확보해 지역 의료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의료지원플랫폼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6일부터 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시민체감 AI공공의료서비스 구축 사업을 통해 지역 보건소 5곳을 'AI보건소'로 구축하고 있으며, 남구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내 고령자 기초검진 및 재활 등 건강관리를 위한 전국 최대 규모의 'AI헬스케어실증센터'도 조성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참여 의료기관은 K-FDA(식

품의약품안전처) 인증을 획득한 홍보진단 등 AI진단지원서비스 12종을 활용해 진료와 판독 시간을 단축하고, 검진 정확도 향상 등으로 이용 환자에게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기존 검진자료 CD 등을 통한 타 병원과의 협진 등 선진의료서비스 시스템 구축으로 원격판독과 온라인 협진 등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수집된 개인 및 의료기관의 헬스케어 데이터는 개인동의 절차 등을 거쳐 광주 인공지능집적단지 국가데이터센터에서 저장, 가공, 비식별화해 AI학습용 데이터셋 개발, 기업 맞춤형 AI제품 개발 등에 활용한다.

손경중 광주시 인공지능산업과장은 "인공지능 기술의 보급 확산을 위해 시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AI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노후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추가 지원

### 광주시 580여대 22억원 투입 생계형 차량 자기부담금 없어

광주시는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22억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580여 대의 매연 저감장치를 추가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추가 지원 대상은 올 3월30일까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 저공해장치(저감장치)를 신청한 차량 중 소정의 행정 절차에 따라 선정한다.

저감장치 장착 비용은 차종에 따라 281만~651만원이며, 신청자가 납부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은 장치 가격의 10%인 28만~65만원이다. 생계형 차량(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은 자기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한다.

지원된 차량은 장치 부착 후 2년간의 무사용해

야하며, 2년 안에 폐차하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탈거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조의4의 지원금액 회수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또 구조변경 검사일 2개월 전후 15일 이내 교통안전공단에서 저감장치 성능 확인 검사를 받아야 하며, 차량 말소 시에는 반드시 장치를 반납해야 한다.

저감장치 부착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의 지정소식-고시공고에서 '운영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변경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시는 올해 상반기부터 예산 42억원을 투입해 매연저감장치 970여 대 장착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총 3215대 161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연합

# 행복이벤트

응모기간 2021년 3월 8일 ~ 12월 31일 추첨 2022년 정기총회(22년 1월 예정) 행사대상 신규 및 기존 거래자  
응모방법 유니온 정기적금개설, 체크카드20만원 이상 이용, 출자금자동이체, 신탁공제가입, 공과금자동이체 및 계좌이동제, 신탁혜유카드발급, 사업자 결제계좌, 연금자동이체, 사회적 예탁금 등  
※ 중복응모가능, 동일 항목당 최대 2매까지(응모방식은 창구방문)

**파워정기예탁금 I형, II형**

**12개월 연 1.7%** 세전/만기해지

**18개월 연 1.77%** 세전/만기해지

**1등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1명**

**2등 LG퓨리케어 공기청정기 2명**

**3등 제주도 2박3일 숙박이용권 5명**

**4등 키친아트 에어프라이어 15명**

**5등 테팔 세프드프랑스 프라이팬 100명**

※ 제세공과금(22%)은 당 신청이 부담하며, 경품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연합영업점 및 홈페이지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흥본점 (광주 북구 문흥로 33) **266-4150**

매곡지점 (북구 설죽로 315번길) **572-4150**

양산지점 (북구 양산로 55) **573-4150**

침단지점 (북구 침단신로 91번길2-2) **576-4150**

운암지점 (북구 북문대로 88) **528-4150**

동광주지점 (북구 동문대로 187) **264-4150**

동림지점 (북구 북문대로 238) **513-4150**

각화지점 (북구 북문대로 283, 285) **263-4150**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연합

신협중앙회심의회제2021-6호(2021.05.28), 유효기간 2021.12.31까지